

K리그 미리보는 결승전 전북-울산 시즌 첫 대결

1위 자리 놓고 28일 양보없는 한판 광주FC 오늘 포항 상대 설욕 나서 전남은 28일 안방서 수원과 대결

K리그가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뜨거워진다. 지난 시즌 최종 라운드까지 우승 경쟁을 했던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가 28일 오후 6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시즌 첫 대결을 한다. 전북은 '디펜딩 챔피언'이자 리그 1위 자력으로 적지를 찾는다.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까지 우승컵을 놓고 다했던 두 팀은 올 시즌에도 선두 다툼을 하며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9라운드 경기가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꼽히는 이유다. 전북이 7승 1패(승점 21)로 1위를 지키고 있고, 울산이 6승 2무(승점 20)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전북이 앞선 광주FC와의 경기에서 후반 40분 한 교원의 골로 진담승을 거두면서 4연승 중이다. 4라운드 광주 원정에서 자책골로 힘겹게 1-1 무승부를 기록했던 울산은 이후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역시 4연승 중이다. 전북은 다득점 승리는 많지 않지만 매 경기 쉽게 무너지지 않은 모습으로 K리그를 점수했다. 울산은 현재 K리그에서 유일하게 패배가 없는 팀이다. 특히 K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19득점)을 넣었지만 최소실점(4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공수밸런스를 과시하고 있다.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두 팀의 경쟁이 치열하다. 전북과 울산은 앞선 8경기 평균 점유율에서 나란히 55.2%로 공동 2위다. 이번 경기에서 어느 팀이 점유율 싸움에서 앞서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지 관심사다.

경기 당 평균 키패스 횟수도 전북이 9.5개, 울산이 9개로 나란히 1-2위다. 경기 당 크로스 횟수에서는 울산이 27.5개로 1위, 전북이 25.8개로 뒤를 쫓고 있다. 두 팀은 리그 평균 크로스 20개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2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울산 주니오가 9골로 득점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 라운드에서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을 기록한 울산 김인성은 최근 연맹이 공개한 7라운드 피지컬 데이터에서 최고 시속 35.8km를 찍어 K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임을 증명했다.



28일 오후 6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울산현대의 미리보는 K리그 결승전이 열린다. 사진 왼쪽부터 주니오·김인성(이상 울산), 이동국·한교원(이상 전북).

전북도 '스타군단'으로 밀리지 않는다. 지도자 연수에 참여하느라 두 경기에서 자리를 비웠지만 이동국은 올 시즌 4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한교원도 앞선 광주전에서 결승골을 넣는 등 3골 3도움으로 불요불박 공격력을 보이고 있다.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뜨거워질 K리그, 광주와 전남드래곤즈는 새출발선에서 시작한다. 광주는 앞선 전북 원정에서 0-1패로 지면서 4연승 달성에도 실패했다. 하지만 전북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싸움을 하며 자신감을 채웠다.

광주는 연승 실패의 아쉬움을 털고 26일 오후 7시 안방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5무 10패의 부진을 끊기 위해 도전한다. 전남도 안방에서 새로 승점 사냥을 시작한다. 개막 후 6경기 무패행진(2승 4무)을 달렸던 전남은 앞선 대전 원정에서 0-2패를 당했다. 퇴장 악재 속 대전으로 팀을 옮긴 바이오에게 아픈 썩기골도 허용했다. 전남은 28일 오후 6시 안방에서 수원 FC를 상대로 2020 K리그2 8라운드 경기를 갖고 순위 싸움에 재시동을 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1회 영암드래그레이싱 28일 우천으로 대회 연기

(사)대한모터스포츠협회는 오는 28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회 영암드래그레이싱 대회를 우천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25일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400m 직선코스를 빠르게 경주하여 순위를 정하는 드래그레이싱의 특성상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6월 대회는 연기하기로 했다. 단, 7월과 9월, 그리고 11월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영암드래그레이싱대회는 연 4회에 걸쳐 펼쳐지는 시리즈대회로 ▲400m 주행기록이 빠른 차가 우승하는 베스트랩 4 CLASS ▲정해진 시간에 가장 근접하게 주행하는 차가 우승하는 타임어택 3CLASS 등 총 7개 CLASS로 진행된다. 총 상금 규모가 1억 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드래그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영암국제자동차경기장의 활성화와 건전한 모터스포츠 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전남 개발공사(사장 김철신)와 자동차 휠 전문 제조 기업(주)ASA(대표 유동기)가 지난 5월 스폰서십 협약을 체결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황희찬 모처럼 골맛...시즌 '10골·10도움'

후반 교체출전해 페널티킥 득점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황소' 황희찬(잡츠부르크)이 리그 10골·10도움을 달성했다.

황희찬은 25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알리안츠 슈타디온에서 열린 라피드 빈과 2019-2020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29라운드 원정에서

6-1로 앞선 후반 34분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팀의 7-2 대승을 거들었다.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 이후 귀중한 승리를 챙기며 승점 41을 쌓은 잡츠부르크는 2위 LASK 린츠(승점 33)와 승점 차를 8로 벌리면서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황희찬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가운데 잡츠부르크는 전반 19분 만에 먼저 실점했지만 전반

22분 만에 노아 오카포의 동점골에 이어 전반 33분 에녹 음웨푸의 추가골과 전반 39분 도미니크 소보슬라이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역전에 성공했다.

전반 43분 알버스 발치의 득점으로 전반을 4-1로 마무리한 잡츠부르크는 후반 15분 안드레 라팔뉴의 득점으로 대승을 예고했다.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황희찬은 후반 17분

팻슨 다가를 대신해 최전방 투톱 스트라이커로 투입됐다.

황희찬은 후반 20분 즐라트코 유누조비치의 득점으로 6-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후반 34분 페널티킥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10골 10도움에 성공했다. 더불어 이번 시즌 15골(정규리그 10골·UEFA 챔피언스리그 3골·리그컵 1골·UEFA 유로파리그 1골)째를 기록했다.

잡츠부르크는 후반 추가시간 실점했지만, 7-2 대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EPL 4위 싸움

리버풀 독주 속 맨유 7년만의 헤트트릭으로 5위 수성

리버풀의 독주로 우승 레이스 열기는 일찌감치 식어버렸지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4위 싸움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는 25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19-2020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3-0 완승을 했다.

골잡이 앙토니 마르시알이 전반 7분과 44분 연속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29분에는 마르쿠스 래시퍼드와의 이대일 패스에 이은 집숫으로 헤트트릭을 완성하며 맨유를 승리로 이끌었다.

맨유에서 무려 7년 만에 나온 정규리그 헤트트릭이다. 이전까지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던 2013년 4월 애스턴 빌라전에서 로빈 판페르시가 기록한 헤트트릭이 마지막이었다.

7경기 무패를 달린 맨유는 5위(승점 49·골득실 +17)를 지키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나선 4위 첼시(승점 51)와의 격차를 승점 2점으로 좁혔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6위에 그쳐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못한 맨유로서는 4위 안에 드는 게 지상 과제다.

4위를 노리는 건 이들 두 팀만이 아니다. 신흥 강호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도 이날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라울 히메네스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하며 맨유에 질세라 승점 3점을 추가했다. 울버햄프턴(승점 49·골득실 +10)은 골 득실에서 뒤진 6위에서 맨유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맨유가 남은 8경기에서 한 발만 빼앗해도 챔피언스리그 티켓뿐 아니라 5위 팀에 주어지는 유로파리그 티켓까지 잃을 수 있다.

손흥민의 특급 활약에 힘입어 시즌 초 부진을 딛고 7위(승점 45)까지 올라온 토트넘 홋스퍼도 4위권 진입을 향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웨스트햄전(2-0 토트넘 승)에서 부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리그 중단으로 오랫동안 가동 중지 상태였던 해리 케인이 6개월 만에 골 맛을 봐 토트넘 팬들이 '챔스 기대'를 버리지 못하게 만든다.

5위 맨유와 6위 울버햄프턴, 7위 토트넘이 31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를 신고한 가운데 이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첼시는 26일 2위 맨체스터 시티라는 만만찮은 상대와 맞대결한다. 첼시의 정규리그 마지막 상대가 울버햄프턴이어서 4위 싸움의 승자는 마지막에 가서야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우승 '1승' 남았다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가 24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팀의 4번째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리버풀은 30년 만의 리그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연합뉴스

양예빈, 고교서도 무적 육상 여자 400m 우승

'육상 샷발' 양예빈(16·용남고)이 고교 진학 후 처음 나선 경기에서 무난하게 우승했다.

양예빈은 25일 오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국 18세 이하 육상경기대회 여자 400m 결선에서 58초18로 1위를 차지했다.

기록은 다소 아쉬웠다. 양예빈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7월 작정한 개인 최고 기록이자 한국 여자중학생 기록인 55초29에 2초89 느린 기록으로 고교 첫 경기를 끝냈다.

하지만, 경쟁자는 없었다. 초반부터 선두로 나선 양예빈은 1분00초33으로 레이스를 마친 2위 최윤서(덕계고)를 여유 있게 제쳤다.

사실 양예빈은 일반부 선수와 경쟁하는 수준이다. 이날 성인 선수가 출전한 전국선수권 400m에서는 이아영(광양시청)이 56초85로 우승했고, 오세라(김포시청)가 56초97로 2위를 차지했다. 두 선수를 제외하면 양예빈보다 빨리 달린 일반부 선수는 없었다.

양예빈은 400m에서 지난해 한국 여자 선수 중 두 번째로 빠른 55초29를 찍었다.

55초29는 2019년 한국 여자 400m 전체 2위이자, 역대 11위 기록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살아있다
2관	#살아있다
3관	배트맨 비긴즈, 엔딩스 비기닝스, 침입자
4관	#살아있다
5관	결백,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6관	#살아있다
9관	결백,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위대한 쇼맨, 에어로너츠
7관	씨네카를 사라진 시간
8관	씨네카를 결백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김선아의 유월의 소나타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
2020. 6. 26.(금) AM 11: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방탄소년단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소년단>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지람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